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올해의 '100교회 운동'

농어촌 113개 교회와 결연 확정

지원자는 개인·가정, 여전도회, 남선교회 순
한 몸된 교회관 실현과 민족복음화의 비전으로

올해의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돕기 운동' (이하 100교회 운동)이 농어촌 미자립 113개 교회와의 결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자매교회와의 결연 현황을 보면 개인 혹은 가정이 57개 교회, 여전도회가 24개 교회, 남선교회에서 16개 교회, 다락방에서 8개 교회, 찬양대에서 2개 교회, 위원회에서 2개 교회, 교회학교에서 1개 교회를 각각 후원하기로 하였다.

우리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을 펴기로 결정하였고 지난 2년간 이 운동을 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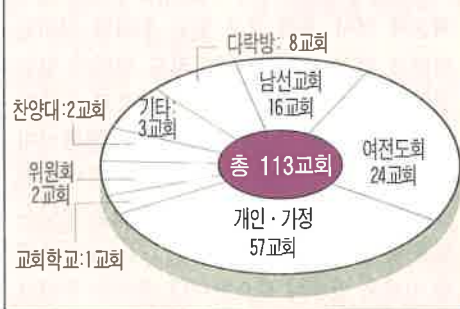
100교회 운동 첫 해인 1995년도에는 107개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였으며, 2차년도인 1996년도에는 110개 교회를 후원한 바 있다.

한편 우리교회에서 일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 장학금의 혜택을 농어촌 목회자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하기도 하였다.

올해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후원자와 결연한 농어촌 교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좀 더 실체적인 후원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가야 할 것이다.

100교회운동을 주관하는 전도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목회자의 영적 재충전의 기회를 마

▼올해의 100교회운동 후원자별 결연현황



련하여 농어촌교회의 양적 성장과·질적 성숙을 위한 노력을 심도있게 펼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후원자 혹은 부서에서 농어촌의 한 교회를 돕는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우선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지원금의 납부는 주일예배 시 '농어촌 100교회운동'라고 표시된 붉은색 봉투를 활용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주 셋째 주 화요일에 자매 교회로 송금되므로 전도위원회에서는 매월 셋째 주일까지는 그달분의 후원금을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교회는 도시와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

리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의 자립을 도우므로써 전국 어디에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교회가 후원할 수 있는 교회는 100교회 남짓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 몸된 교회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향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교회 100교회운동의 또다른 취지이다.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 없는 민족복음화의 길도 요원해 질 것이다.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

방학을 이용하여 말씀과 기도로 집중적인 신앙훈련을 하는 수련회 및 어린이 겨울성경학교가 부서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에 시작하여 "화평을 이루는 중등부"이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 중등부수련회를 필두로 지난 주에는 대학부수련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겨울수련회의 남은 일정을 보면 ▲ 유치부 23일(주일)~24일(월) 이틀간 ▲ 유년부 24일(월)~25일(화) 이틀간 ▲ 초등부 27일(목)~28일(금) 이틀간 어린이 겨울성경학교를 개최하며, ▲ 고등부 2월 24일(월)~26일(수) 2박 3일간 ▲ 청년부 28일(금)~3월 1일(토) 1박 2일간 각각 교회에서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한편 사랑부도 27일(목)에 일일 겨울성경학교를 연다.

이미 계절학교를 끝낸 부서들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를 앞둔 부서는 잘 준비하여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의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다.

학습·세례식

19일(수) I·II부 예배 시간에

2월 학습·세례식이 19일(수) I·II부 예배시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17일(월), 문답은 18일(화) 오후 7시에 각각 실시된다.

새가족부에서는 지난 9일(주일)에 학습자 교육 16일(주일)에는 세례자 교육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는 17일(월)에 있는 교육에 반드시 참가해야 문답과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

상반기 장학생 선발

16일(주일)까지 사무국에 신청

장학위원회(위원장: 윤봉준 장로)에서는 1997년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우리교회에서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교회 내의 학생과 지역사회 극빈자 가정의 학생, 농어촌 자매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일년에 두 차례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오늘까지 접수하며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임종”

(창세기 47장 28 - 31절)

이중윤 목사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따라서 죽는 장면을 길게 묘사한 곳은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도 짧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5:8, 9). 이삭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끝부분에서 시작하여 49장 끝에 와서야 죽습니다. 그리고 50장에도 계속 야곱의 장례식에 대한 기사로 채워집니다. 실제로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4장(총 73절)이나 채워졌습니다.

야곱의 임종장면은 세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야곱은 총애하는 요셉에게 자기가 죽으면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부탁하며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자식들을 모아 놓고 그들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49장).

1. 이스라엘은 죽어야 할 인생이다.

야곱은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의 인도로 바로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죽음을 예견하였습니다만(47:9) 그후로도 야곱은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이처럼 연장되고 생기를 얻은 것은 요셉을 만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야곱도 결국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입니다(히 19:27). 매일 매일 시간이 흐름으로 우리는 죽음에 한걸음씩 가까워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생애 마지막을 오히려 자기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혀야 했다.

야곱은 가나안 막벨라 족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큰 민족이 될 것과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케 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며 그의 자손이 거기서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묻히기를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위치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 땅에 매장할 것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믿음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에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편에서 일해야 합니다.

3. 조상들과 함께 잠들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한 말은 짧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30절). 이 말에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 것’과 ‘선영에 장사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조상과 함께 쉬는 것 즉 안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 상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부활의 희망이 더 큰 희망으로, 불완전한 계시가 완전한 계시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모두 다 새로운 희망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28:15).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무덤 너머의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임을 확신한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야곱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히11:21).

그의 임종의 시각은 지난 날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과 간증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의 곁에 계셨음을 고백하는 야곱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세상을 이긴 신앙의 승리자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 순례자 컬럼 ✧

“중요한 하나”

하나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께서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로 헤매셨다는 비유를 통해 작은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역설해 주셨다.

개인이 전체의 희생물이 될 수 없음은 민주주의의 기초며 따라서 전체가 중요하듯 그 개체 하나하나도 중요한 것이다.

갈멜산상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승리했다. 나 하나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바로 볼 때 원수의 수가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또한 나 하나가 중요하듯 남 하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중요시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용납한 죄와 단 한 번의 실수가 영원을 상실케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은혜 나누기 - 대학부수련회를 마치고

이스라엘의 고난 그리고 하늘에 간 친구... 뜨겁게 부르짖던 찬양과 간절한 기도... 우면산 대탐험과 예수님의 고난... 우리 속에 넘쳤던 사랑...



수련회 시작 일주일 전부터 30가지 기도제목을 준비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했었다. 30가지 기도제목의 목록을 완성하기 바로 전에 대학부에서 함께 활동하던 형제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너무도 크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제목을 쓰게 되었다.

기대감과 아픔을 동시에 가슴에 안고 시작한 수련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었다.

10년동안 일주일에만 한번씩 만나서 서로 기도를 하기로 한 '기도합주단'의 결성은 그 다짐만으로도 10년 후 우리의 간구가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높이고 목이 쉬도록 뜨겁게 찬양한 찬양의 시간, 촛불을

켜고 뜨거운 간구를 드린 중보기도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삶과 피를 생각하며 새로운 다짐을 한 애찬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본 우면산 대탐험... 모두가 값진 시간들이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특강시간을 통해 호선이의 죽음을 통한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고 그 뜻을 저마다의 가슴에 새겨 주셨다.

개인적으로는 마음만 항상 간절했을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가족구원의 긴급성에 대해 주님의 질책을 들었다. 그래도 내 힘으론 못하겠다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어리석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눈물의기도를 드렸다. 애통하는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수련회의 시간과 공간을 치밀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한다. -노대희-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허락지 않았었는데 어렵게 결단하고 참여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 내 입으로 나오던 뜨겁던 회개와 고백 대신 우리 조원들의 웃음으로 내 기도예 응답해 주셨다. 내가 상상했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조원 각자에게도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로 임하셨기에 감사하다. 우리 대학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내게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 우리 조원들에게도 감사한다. 추위 속에서도 따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권재현-

이번 수련회에서는 진정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다. 무엇보다 수련회 직전에 겪었던 친구의 죽음은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였다.

친구가 못다 산 인생을 내가 더 값지게 살리라.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드린다.

-김지윤-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찬양, 마음껏 부르짖으며 드리는 찬양이 어색하지 않고 감동스러웠다.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이 몹시 아쉽고 속상했다. 내 마음문이 주님을 향해 더욱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면산 대탐험!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만큼 힘들었지만 나약하기만 한 내가 그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동기로 그 시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앞으로 세상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수련회가 끝날 때마다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누지만... 자신이 없다. 또 예전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것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수련회를 마친다. 이번 수련회에서 내가 찾은 사랑의 하나님... -우서윤-

지금까지 얼굴만 알고 지내왔던 선배들과 친구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눈물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뻐다. 모태신앙인이란 큰 복을 받았음에도 신앙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안일함이 깨어진 수련회였다. 힘든 일에서 서로 협동하고 즐거운 시간에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교회라는 우물에 갇혀 세상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 수 없는 크리스찬은 쓸모없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준비운동을 한 것 같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여름수련회가 기다려진다.

-오혜진-

故 신송미 양을 추모하면서

새로운 오늘을 아멘하게 하소서

신동기(집사, 중동부 교사)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깊은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같은 긴 옷자락에 가득 드리워진
당신의 시간과 공간

정말

그리도 집만

빌려쓰고 돌려드려야 하나요

이 땅의 화산같은 꿈은

하늘에 걸어 놓고

당신의 숨겨진

찬란한 비밀을

다 알지도 못한 채

어제 아닌 오늘

내일 아닌 지금

부르시는 당신의 엄위하신 음성!

여윈 눈물을 당신께 동이고

간절히 부르시던 찬송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목숨같은 엄마

빈 가슴에 예쁘게 심어 놓고

생명시냇가 낙원에서

마음껏 노래하게 하소서

생의 길이보다는 깊이를 드립니다

사랑의 부피보다는 무게를 드립니다

아! 우리의 위대한 딸!

새 하늘의 큰 별 이삭되어

우리의 가슴 가슴마다

새로운 오늘을 아멘하게 하소서

간증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김영현(집사, 9교구)

“하나님 우리 차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차가 다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모두 다 깨져버
렸어요.”

여섯살바기 손자녀석은 언제나 무슨 일에
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아이입니다. 혹 기도
를 안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서
왜 기도 안하느냐 먹느냐고 따져묻곤 할 정도
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 출동한 구조반
에 의해 우리 가족이 차박으로 빠져나오는 순
간에도 잠에서 막 깨어난 손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날 우리 두 내외(남편 김만선 집사)와 큰
아들 가족 세식구(아들 김태영, 자부 이희성,
손자 김한조)가 함께 탄 차는 원주에서 서울
로 오던 길이었습니. 그날 우리 가족이 탄
차의 운전대는 피곤한 남편을 대신해 10년째
무사고 운전을 해 온 큰 아들이 잡았습니다.

이천과 곤지암 사이 고속도로에 이르러 급
정거한 앞차를 피하려다 우리 차는 중앙분리
대를 들이받고 거꾸로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찌그러져 나뒹구는 지프차 속에서 다섯 식

구는 움썅달썅 할 수 없었으나 의자가 마치
큰 팔을 벌려 감아 안듯이 우리 다섯식구를
보호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라는 구절을 떠올
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하심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는 처참하게 망가졌으나 우리 다섯 식구
는 가벼운 찰과상 정도만 입었을 뿐 큰 상처
는 없었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그 몹시도
길게 느껴지던 사고 순간에 우리 가족을 지배
한 것은 평안함과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이었
습니다.

생명을 위협할만한 많은 위험이 우리 곁을
날마다 스쳐가고 인간은 너무도 나약하여 사
고나 재해 앞에서 무력함을 느낍니다. 죽음의
닥쳐오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 체험한 하나님
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은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리라는 결심으
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
리 가족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저 뿐 아
니라 우리 가족이 자자손손 하나님만 높이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서
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계신 하
나님을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 교우동정 ■

- * 한중호 집사(10교구)는 15일(토) 의정부에 MOOK/GAG대리점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김신영 집사(신용식 집사, 10교구)는 18일(화) PCK화장품 회사 사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 * 황선호 집사(이순희 집사, 1교구)는 19일(수) 논현동에 연립주택을 완공하고 입주감사예배를 드린다.
- * 김상철 장로(4교구)는 18일(화) 미국 Marlyland대학에서 열리는 “한반도 식량과 안보문제” 회의 참석차 도미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11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997년 2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강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교회학교의 겨울성경학교·수련회를 위해
3. 농어촌 자매교회를 위해
4.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